http://doi.org/10.17938/tjkdat.2025..85.213
© 2025. 윤유정 All Rights Reserved.

1990년대 한국 TV드라마에 나타난 노인 돌봄의 젠더화

—〈어디로 가나〉와 〈인생〉,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중심으로

윤유정*

〈차례〉

1. 돌봄의 가시화와 1990년대 TV드라마의 응답
2. 〈어디로 가나〉(1992)와 〈인생〉(1995): 돌봄 노동의 부과와 수행 주체의 선택
3.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1996): 돌봄 관계의 역전과 '사랑노동'
4. 돌봄의 무게와 재현의 환상을 넘어

국문초록

이 글은 김수현의 SBS 창사특집극 3부작 〈어디로 가나〉(1992)와 〈인생〉(1995), 노희경의 MBC 창사특집극 4부작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1996)을 분석함으로써, 1990년대 한국 TV드라마에서 노년기의 취약성과 '돌봄'의 문제가 형상화되는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최근 한국 TV드라마는 노화와 죽음의 구체적인 형태에 주목하며 가족 관계를 초과하는 대안적 돌봄의 상상력을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돌봄 서사가 나타나기 전까지, 한국 TV드라마에서 돌봄은 가족 내 여성에게 당연스레 부과되는 것으로서 하나의 '문제'에 이르지 못한 채 배경에 머물러 있었다. 1990년대에 이르면 비로소 돌봄을 문제화하고 이를 전면적으로 다루는 작품이 특집극의 형태로서 등장하기 시작한다. 김수현의 3부작 특집극 〈어디로 가나〉와 〈인생〉은 돌봄 수행의 주체를 선택하는 '과정'을 문제삼으며 가족 내 여성에게 부과되었던 돌봄의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들여다보게 한다. 〈어디로 가나〉는 가족 내에서 돌봄 노동이 며느리에게 부과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돌봄 수행자와 수혜자 사이의 양도될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되는 순간을 다룬다. 〈인생〉의 경우 돌봄 대상자가 가족의 손을 떠나 기관으로 이양되는 선택의 순간과 그에 가로놓인 윤리적 딜레마를 짚어낸다. 한편 노희경의 4부작 특집극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돌봄의 주체인 동시에 대상이 된 여성을 통해 사랑 노동과 모성의 문제를 탐색하고 있다. 이들 작품은 노년기 돌봄 대상자의 의존 상태를 구체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시청자로 하여금 돌봄 수행자에게 가해지는 무게를 인식하게 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 작품에 나타난 전형적인 재현은 시청각적 충격과 함께 여성의 돌봄 노동을 자연화하며 재현 대상에 대한 특정한 취약성을 덧씌우고 만다. 이와 같은 돌봄의 '환상'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www.kci.go.kr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돌봄 수행자뿐만 아니라 돌봄 수혜자의 자리를 함께 상상하는 정동적 평등을 모색해야 한다.

주제어: 김수현, 노희경, 노화, 돌봄, 사랑노동,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어디로 가나〉, 〈인생〉, 정동적 평등, 취약성, 치매 서사

www.kci.go.kr

1. 돌봄의 가시화와 1990년대 TV드라마의 응답

이 글은 김수현의 SBS 창사특집극 3부작 〈어디로 가나〉(1992)와 〈인생〉(1995), 노희경의 MBC 창사특집극 4부작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1996)을 분석함으로써, 1990년대 한국 TV드라마에서 노년기의 취약성과 '돌봄'의 문제가 형상화되는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1)]

1990년대에 접어들며 한국의 '가족'은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은 가족의 생계와 행복을 책임지는 존재로서의 '가장'이 어머니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가정 내에서 어머니의 존재감이 보다 커지게 되었다. 이에 더해 이혼율의 상승과 출산율의 감소, 결혼 연령의 상승, 자녀 수의 감소 등은 그간 유지되어 왔던 가족과 자녀, 결혼의 개념에 기본적인 변화가 오고 있음을 시사한다.[2)] IMF 외환위기 이전 1990년대에 가족 해체의 징후가 이미 확산되어 가고 있었으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자리 잡아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정상 가족'에 대한 뿌리 깊은 이데올로기를 붕괴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기존의 가족의 개념에 도전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3)]

이와 같이 기존의 가족 제도가 도전받기 시작한 상황에서, 여전히 여성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가족 내의 '돌봄' 수행은 문제적으로 인식되

---

1) 이 글에서는 우선적으로 세 작품의 극본을 참조하고 있음을 밝힌다. 〈어디로 가나〉(1992)의 경우 현재 SBS에서 온라인 VOD 형태로 제공하는 작품 전체를 확인할 수 있다. (https://allvod.sbs.co.kr/search/22000013032/22000462403?type=program&time=30#, 2025.5.18. 확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1996)은 DVD의 형태로 작품 전체를 확인하였다.

2) 서선희, 「1970년대 이래의 한국 가족의 변화와 앞으로의 변화 방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1), 한국가족관계학회, 1999, 149-152면.

3)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한국 사회는 남성 가장을 중심으로 하는 본격적인 가족의 해체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IMF로 인한 가족 해체가 사회 문제로 등장하기 전까지 한국 사회에서 현대 가족의 변화는 큰 우려의 시각으로 접근되지는 않았다."(서선희, 앞의 글, 153면.)

www.kci.go.kr

기 시작한다. ‘돌봄’이란 “한 명 이상의 신체적·사회적·심리적·정서적 요구와 발달 상의 요구를 보살피는 노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4] 돌봄은 여성적 또는 ‘비생산적’이라고 여겨지는 돌보는 행위와 연관되어 평가절하되어 왔으며, 여성은 돌봄 노동을 떠맡도록 구조적으로 조직되어 왔다. 특히 신자유주의에서 전통적인 (핵)가족이 돌봄의 기본 단위로 설정되며, 돌봄 관계는 “오로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친족만을 돌보는” “자기것 돌보기”로서 축소되었다.[5] 이와 같은 돌봄 노동의 여성화는 현대 사회에서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구조를 띠고 있다. 여성이 집안에서 사랑을 통해 돌봄을 제공한다는 지배적인 인식은, 돌봄의 제공자인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함께 상품의 가능성을 띠게 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봄의 제공자는 여성이며, 집안에서의 돌봄은 무보수로, 집 밖에서의 돌봄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로서 그 가치가 책정되고 만다. 오랫동안 ‘유급노동’의 영역과 구분되어 왔던 돌봄은 여성에게 부과되는 도덕적 의무로 여겨지며 ‘사랑’이나 ‘헌신’, ‘희생’ 등의 어휘에 의해 포섭되어 왔으며,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로 정의되지 못한 채 주변화되어 있었다.[6] 특히 가족 내에서 누가 고령자를 돌볼 것인지의 문제는 별다른 고민 없이 여성에게 자동적으로 부과되고 만다. 우에노 지즈코에 따르면, 여성의 노동 시장 내 지위와 한 세대 내의 자원, 여성 자신의 생애 주기뿐만 아니라 ‘돌보는 성’으로서 여성(성)을 보는 규범, 친족 내의 가족 규범 등은 여성을 노인의 돌봄자로 규정하게 된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을 통해 여성은 ‘애정’이나 ‘죄책감’ 등과 함께 스스로 돌봄을 선택하게 된다.[7]

---

4) Diemut Bubeck, *Care, Justice and Gend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 29, 캐슬린 린치 외, 강순원 옮김, 『정동적 평등 : 누가 돌봄을 수행하는가』, 한울아카데미, 2016, 90-93면에서 재인용.

5) 더 케어 컬렉티브, 정소영 옮김, 『돌봄선언』, 니케북스, 2021, 13-21면.

6) 캐슬린 린치 외, 앞의 책, 90-93면.

7) 우에노 지즈코, 조승미·이혜진·공영주 옮김, 『돌봄의 사회학』, 오월의 봄, 2024, 211

www.kci.go.kr

1990년대 한국 사회에서 역시 노년층에 대한 부양과 돌봄 의무는 여성 배우자나 딸, 며느리 등 정확히 가족과 젠더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8] 1998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가족 내 노인부양 책임자에 대한 사회조사에 따르면 노부모를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9] 더하여 가족 내에서 노인을 주로 돌보는 사람은 대부분 여성으로 편중되어 있었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2004년도 노인생활실태조사 및 복지욕구 조사」에 의하면 주돌봄자의 80%는 여성이었으며, 주돌봄자와 피돌봄자의 관계는 배우자 또는 며느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급 봉사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전체의 2.4%에 불과하여, 노년층에 대한 돌봄이 대부분 가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0] 가족의 노인 돌봄 부담에 대한 정책이나 제도적 지원에 대한 인식이 미비했던 1990년대의 상황은 이보다 더욱 열악했으리라 파악 가능하다.

한국 TV드라마에서 역시 돌봄은 오랜 시간 동안 가족 내 여성에게 당연스레 부과되는 것으로서, 하나의 '문제'로 인식되기보다는 배경에 머무르곤 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며 증가하는 고령자 돌봄의 부담이 사회적 차원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노인 문제를 본격적인 작품의 소재로 서사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1995년 11월 24일자 연합뉴스는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노인 문제를 본격 소재로 한 이른바 '실버 드라마'가 안방극장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도하며, 노인이 드라마의 중심 인물로 부상하고 있는 흐름을 정리한다.[11] 해당 기사는 1990

면.

8)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게 부과되는 돌봄 노동의 양상 및 동시대의 과제를 지적한 연구로는 안숙영, 「돌봄노동의 여성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여성학』 34(2), 한국여성학회, 2018 참조.

9) 통계청, 〈부모 부양 책임자〉,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60&clasCd=10&idxCd=F0037, 2025.5.18. 확인.

10) 장혜경 외, 『가족 내 돌봄노동 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2006, 251면.

11) 「〈흐름〉 노인문제 다룬 '실버 드라마' 본격 등장」, 《연합뉴스》, 1995.11.2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4006950?sid=103, 2025.5.18. 확인.

www.kci.go.kr

년대에 들어 노인 문제가 단막극이나 특집극을 통해 다루어지기 시작했으며, 특히 〈어디로 가나〉나 〈인생〉 등 김수현의 일련의 특집극은 "노인 문제를 정면해부한 작품"으로 사회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시선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인생〉에 대한 한 주평은 "노인 문제를 소재로 한 드라마라면 대개 '효'를 강조하며 그렇고 그런 결말로 끝나는 것은 상식"이었던 안방극장에서, 김수현의 특집극이 "노인 문제가 가족 관계로만은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임을 강조"하며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12] 이와 같은 기사는 1990년대에 이르러 노인 돌봄의 문제가 TV드라마를 통해 본격적으로 탐색되기 시작했으며, 그 출발점에는 김수현의 특집극이 놓여 있음을 확인케 한다.[13]

이와 같이 1990년대 이르면 노인 돌봄을 문제화하고 이를 전면적으로 다루는 TV드라마가 특집극의 형태로서 차츰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와 같은 드라마는 그 수가 많지는 않으나, 노인 돌봄의 문제를 가족 서사의 중심에 위치시키며 가족 내 돌봄의 구조를 성찰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 글에서는 김수현의 〈어디로 가나〉(1992)와 〈인생〉(1995), 노희경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1996)을 통해, 1990년대 노인 돌봄에 대한 인식과 그 재현 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들 작품은 김수현과 노희경이라는 한국 TV드라마사에서 주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작가의 '특집극'이다.[14] 두 작가는 당대 방송계에서 뚜렷한 작품 세계를 확보하

---

12) 「〈티비평〉 SBS 창사특집극 〈인생〉」, 《연합뉴스》, 1995.11.1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4004579?sid=103, 2025.5.18. 확인.

13) 그간 김수현의 TV드라마는 주로 가족 이데올로기의 자장 내에서 고찰되어 왔다. 작품에 가로놓인 가부장제와 반가부장제의 문제를 탐색하며 김수현 TV드라마의 가족 담론을 살펴본 연구로는 특히 백경선, 「김수현 가족드라마의 가족 담론 고찰 — 〈엄마가 뿔났다〉, 〈인생은 아름다워〉, 〈무자식 상팔자〉를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50, 한국극예술학회, 2015를 참조할 수 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작품에 주목한 연구로는 김명은, 「김수현 단막 홈드라마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를 들 수 있으나, 김명은의 연구는 인물과 언어의 특성, 갈등의 양상에 주목하는데 그치고 있다.

14) '특집극'이란 "일일극 위주의 텔레비전 드라마 시장에 예술성과 목적성을 함께 충족시키기 위해 고안된 예술형식"으로, 대체로 단회차 혹은 미니시리즈의 형태로 구성된 짧

고 있었으며, 특히나 특집극은 "'드라마 양식(장르)의 구속성'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기에" 특정한 사회 문제에 대한 작가의 시선을 비교적 자유롭고 다양하게 담아낼 수 있다.[15] 이를 바탕으로 이들 작품은 그간 '효'의 강조로 수렴되었던 전통적인 노년층 재현을 탈피하고자 하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었다. 더하여 이들은 공통적으로 1997년 외환위기 이전의 작품들로, 본격적인 가족 해체의 위기가 도래하기 전 돌봄의 젠더화된 구조가 어떻게 자연화되어 있었는지를 역으로 비춰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최근의 한국 TV드라마는 노화와 죽음의 구체적 형태에 주목하며 가족관계를 초과하는 돌봄의 상상력을 그려내고 있다.[16] 그와 같은 상상에 비해,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1990년대 TV드라마는 정확하게 가족 내에서 여성에게 편중되어 이루어지는 돌봄 노동을 담아내는 데에 집중한다. 여성의 돌봄 수행을 자연적인 것으로 고착시켜 버리는 듯한 작품을 지금에 이르러 살피려는 것에는, 결국 이러한 형태의 돌봄 수행이 크게 변화하지 않은 채로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는 문제가 놓여 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현재, 늘어난 노년층의 돌봄을 수행하는 인력은 여전히 여성들에게 집중되어 있다.[17] 배우자 돌봄에 있어 여성 노인이 남성 노

은 방송극을 뜻한다. (송치혁, 「6.25 특집극 〈최후의 증인〉 연구」, 『공연문화연구』 42, 한국공연문화학회, 2021, 47면.)

15) 백경선, 「문학과 가족(정):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타난 가족상 — 노희경의 특집드라마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21,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6, 54면.

16) 최근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의 돌봄 서사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김미라, 배은경, 「가족과 젠더를 넘어 돌봄의 관계를 상상하기 —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과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54, 한국여성문학회, 2021; 박미란, 「TV드라마 〈눈이 부시게〉에 나타난 반전의 구조와 위로의 방식」, 『한국극예술연구』 68, 한국극예술학회, 2020; 백경선, 「텔레비전드라마 속 노년과 청년의 연대와 그 가능성 — 〈나빌레라〉와 〈눈이 부시게〉를 중심으로」, 『어문론총』 94, 한국문학언어학회, 2022; 백현미, 「'이후의 가족드라마'와 친밀의 정동—〈나의 아저씨〉를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79, 한국극예술학회, 2023.

17) 통계청,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추이〉, 2025. https://kosis.kr/common/meta_onedepth.jsp?vwcd=MT_ZTITLE&listid=A_3, 2025.5.17. 확인.

www.kci.go.kr

인을 돌보는 비율이 훨씬 높으며, 자녀의 노인 돌봄 역시 딸 또는 며느리가 노인부모를 돌보는 비율이 아들 또는 사위보다 확연히 높은 실정이다.[18] TV드라마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상상에 비해, 현실에서 수행되는 돌봄 노동은 여전히 '정상가족'과 돌봄의 여성화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돌봄이 여성에게 구조적으로 분배되는 과정을 돌봄의 '젠더화'라고 볼 때, 이는 단순한 역할 분담의 문제를 넘어 젠더 이데올로기와 노동의 위계화가 교차되는 문제로 여겨질 수 있다.

노년층에 대한 돌봄을 직접적인 재현 대상으로 삼은 초기 TV드라마에 주목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돌봄을 바라보는 시각을 짚어내는 데에 유효한 출발점을 제공한다. 작품 내에서 돌봄 노동자가 '마땅히' 수행해야 했던 일과 개인의 수행만으로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교차하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시 TV드라마의 주된 수용층과 돌봄 수행층이 젠더와 연령 면에서 교집합을 이루고 있었기에, 1990년대 TV드라마는 한국 사회와 돌봄의 구조를 짚어볼 수 있는 분석적 자원을 제공한다. 작품의 수용자들이 돌봄에 대한 재현에 있어 무엇을 예상하고 기대했는지, 또한 수용자들의 예측되는 기대에 부응하며 작품은 당대 현실의 무엇을 문제 삼고자 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들 작품은 노인돌봄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제도적 여건이 점차 갖춰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돌봄 수행자가 가족과 여성 내에서 찾아지고 있는 이유를 사유케 한다. 초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이들 작품과 현재 사이의 30여 년의 시차는 '노노 돌봄' 등의 동시대적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 이는 돌봄에 대한 최근의 대안적 상상이 효과를 발휘하기 이전에 노인 돌봄이 여전히 가족 내부, 특히 여성에게 일차적으로 전가되는 구조와 긴밀히 연결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젠더화

www.kci.go.kr

1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편, 『가족 내 노인돌봄현황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 13-14면.

된 돌봄 노동의 구조와 그 정동적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캐슬린 린치(Kathleen Lynch) 등의 '돌봄 관계' 개념을 분석의 틀로서 참조하도록 한다. 돌봄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분배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돌봄 노동의 수행 주체와 그 수행 조건을 탐색함으로써, 돌봄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1990년대 TV드라마에 재현되고 있는 노인 돌봄 수행자와 수혜자의 불평등한 위치와 환상을 넘어, 정동적 평등을 통한 대안적 상상의 가능성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어디로 가나〉(1992)와 〈인생〉(1995): 돌봄 노동의 부과와 수행 주체의 선택

혼자 사는 중고령자, 또는 노인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 노인에게 돌봄 욕구(needs)가 발생했을 때 가족 중 '누가' 그들을 돌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깊은 고민을 안길 수밖에 없다.[19]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등 노인돌봄의 제도화나 '탈가족화'가 쉽게 상상되지 않았던 1990년대에 노인 돌봄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 안을 맴돌 수밖에 없었다. 김수현의 3부작 SBS 창사 특집극 〈어디로 가나〉(1992)와 〈인생〉(1995)은 공통적으로 이러한 노인 돌봄 수행의 주체를 선택하는 과정을 문제 삼는다. 〈어디로 가나〉는 뇌졸중에 걸린 아버지를 부양하기를 꺼리는 가족들로 인해 셋째 아들/며느리에게 부양 의무가 부과되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낸다. 〈인생〉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는 어려움과 함께, 어머니를 요양 시설로 보내는 결정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을 구체적으로 담아낸다.

총 3부작으로 구성된 작품 〈어디로 가나〉에서 절반 이상의 분량을 차

www.kci.go.kr

19) 진미정 외, 『가족과 돌봄』, 하우, 2022, 47면.

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가족 중 누가 주돌봄자가 될 것인지의 문제이다. 여타 가족들이 저마다의 이유로 아버지를 돌보기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돌봄의 의무는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막내아들 '영하'와 그 부인 '미숙'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수진	현재 조건 맞는 사람이 동서밖에 없어.
미숙	무슨 조건요.
인애	아버님 잘 모실 수 있는 조건.
미숙	(과일에 뻗쳤던 손 거두며) 아니죠. 아버님을 젤 잘못 모실 조건이라면 건…… 제가 첫 째죠. 아버님 날 끔찍하게 두 싫어하구 무시하시는 거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저두 아버님 싫어하구요. 좋아하는 시아버님 병수발두 쉽잖을 텐데 싫어하는 시아버질…… 잘 모실 수 있어요? 아버님은 두형님하군 사이가 괜찮잖어요. 그리구 경제적으루두 우리 집이 젤 못해요.[20]

〈어디로 가나〉의 전반부 줄거리는 노인 돌봄에 있어 주돌봄자가 선택되는 '평범한' 과정을 정확하게 짚어낸다. 노인 돌봄은 과거에 다른 노인을 돌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맴도는 돌봄'을 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이 많은 가족 구성원에게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21]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비교적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는 막내 아들 영하나, 전업주부로 사회적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미숙에게 돌봄 수행의 의무가 부과될 수밖에 없

20) 김수현, 극본 「어디로 가나」, 33면. (김수현, 『김수현 특집극 1 어디로 가나 혼수』, 다차원북스, 2012에서 인용. 이하 김수현의 「어디로 가나」의 극본을 직접 인용할 때는 해당 책의 면수를 표기하도록 한다.)

21) 진미정 외, 앞의 책, 56-57면. Nancy Folbe에 따르면 '맴도는 돌봄'이란 "노인과 아동의 주변을 서성이며 대기하고 관찰하고, 염려하는 시간들"을 뜻한다. 이는 돌봄 노동이 경제적 가치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는 주 원인이 된다.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아픈 노인의 주변을 맴돌며 그와 '한 몸'처럼 살아가야 하는 맴도는 돌봄의 의무는 여전히 공식적인 돌봄 서비스 바깥에서 가족에게 부과되고 있다.

www.kci.go.kr

는 것이다.

한편 아버지 이 교장은 학력이 낮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막내 며느리 미숙을 단 한 번도 며느리로 인정한 적이 없으며, 미숙 역시 자신에게 악담을 퍼붓는 시아버지를 떠맡고 싶지 않아 '이혼'이라는 강수를 두기도 한다. 그러나 미숙은 사람은 누구나 늙기에 시아버지를 모시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는 어머니의 설득과,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 마음을 돌려 시아버지의 주돌봄자가 된다.

미숙	큰 형님 작은형님은 다 뭐 하구 아버님 대소변을 왜 내가 받어야 해! 내가 왜! (영하, 미숙이 잡는 손 뿌리친다. 따르며) 그런 법이 어딨어! 난 죽어라구 미움만 받었지 아버님한테 받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왜애애! (울며불며 차에 오르는 영하 잡으며) 얘기좀 해![22]

한편 이 교장 역시 막내 아들 부부에게 돌봄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며, 막내딸 집에 가지 않는다면 차라리 양로원에 보내달라고 윽박지르기도 한다.

이 교장	(O·L) 양로원으루 가.
윤하	(크윽 터지며) 용서하세요 아버님.
이 교장	(시선을 천천히 큰아들과 맞추고)
윤하(E)	(싸늘한 이교장의 위에) 용서하시구…… 큭큭 이해해주세요 아버지.
윤하	도리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극도로 자제하기는 하나 관리가 잘 안 돼서 쿡 크윽 미치 겠는 심정이 삐져 나오면

www.kci.go.kr

22) 김수현, 앞의 책, 51면.

서) 책임 회피루 생각하시지O·L) 말아주세요. 저 맏자식입니다 아버지. 당연히 제가 해야 하는 일을 못하는 제 마음을…… 헤아려주세요 네?

이 교장 양로원.

준하 (O·L) 아니 아버지가 왜 양로원엘 가세요. 양로원은 자식 없는 노인이 가는 데에요 아 버지. 그거 모르세요? 아버지 자식 없어요? 영하가 모신다는데 양로원엔 왜 가세요.[23]

"신문사에다 전화할 테다 이눔들. 중풍 맞은 지 애비 거리루 내모는 놈들 여깄다구 내 전화한다구우!"라는 이 교장의 협박과 그에 대한 아들들의 반응은 노인 요양 시설의 돌봄 서비스에 대한 당대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위의 대사에서 양로원에 간다는 것은 곧 '부모를 거리로 내쫓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인식된다. 영하와 준하는 의사와 대기업 이사인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언급하며, 망신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부모를 양로원으로 보내는 선택만은 할 수 없음을 강하게 주장한다.("중풍 맞은 제 부모 거리루 내쫓은 의학박사 아들, 이사 대우 아들 공개 망신시키신다는 말씀이지 자넨 그렇게 머리가 아둔해?")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은 1990년대 노인돌봄의 탈가족화에 대한 낮은 관심과 관련된다. 시기별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언론기사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1990년대 노인요양시설을 언급하는 기사는 2010년대에 비해 30배 이상 낮은 건수를 기록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과 관련된 '보건복지부'(1위) '양로원'(2위), '저소득층'(3위), '국민연금'(5위) 등의 연관어 순위는 당시 노인요양시설이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에서의 복지제도 및 지원과 관련되어 인식되었음을 추측케 한다.[24] 1992년 제작

23) 김수현, 앞의 책, 73면.
24) 백지은, 「빅데이터를 통한 '노인요양시설' 관련 언론기사 분석」, 『인문사회과학연구』 30(4),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2, 164-166면.

www.kci.go.kr

및 발표된 〈어디로 가나〉는 이와 같은 인식 하에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강한 반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노인돌봄의 의무는 자연스럽게 가족, 그중에서도 여성에게 부과되고 만다.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장남 및 맏며느리의 돌봄 의무를 자연스럽게 전제하고 있다.[25] 더하여 아들이 아닌 그의 며느리가 주돌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아내들이 아버지를 돌보는 선택에 있어 난색을 표하자 그의 남편들은 (시)부모를 나몰라라 하는 여성들을 탓한다. 시아버지에 대한 돌봄을 수행하지 않는 여성들은 작품 내에서 남편에게 불효자식이라는 죄책감을 주는 존재가 된다. 돌봄에 대한 육체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돌봄을 거부하는 데에 따르는 죄책감을 외면하지 못한 미숙의 선택과 대비되어, 이들은 극중에서 가족에 대한 사랑과 도덕적인 의무를 거스른 '나쁜 여자'가 된다.("요즘 남자 불쌍하지이. 여자 발언권 세지면서 맘하구 다른 불효자식 노릇하구 죽는 날까지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어야 하니……")

그러나 돌봄 수행자와 피돌봄자 모두가 원치 않았던 돌봄의 시간이 시작된 후, 주돌봄자인 미숙을 제외한 모두에게 그 시간은 너무나 익숙한 것이 되고 만다.

준하	아냐 자넨 몰라. 난 말요 형, 여기 애(영하)두 있지만 첨 한 일년 쯤은 아버지 애네 집 에 가 계시게 한 게 틈틈이 괴로워서 참 힘듭디다. 그런데 그게.
윤하	(O·L) 어느 사이엔가 모르게 점점 덜 힘들어지더란 말이지.

25) 가족 내 노인부양 책임자에 대한 통계청의 사회조사(1998~2018)에 따르면, 1998년 가족 내 주 부양자는 '장남' 및 '맏며느리'가 맡아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20%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응답을 보였다. 2000년대 이후 이러한 인식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여, 자녀 모두가 공평하게 노인 돌봄을 공평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기 시작한다.(생태적지혜연구소협동조합, 『돌봄의 시간들 : 돌봄에 관한 9가지 정동적 시선』, 모시는사람들, 2023, 158-159면.)

준하 형두 마찬가지였어?

윤하 (혼자소리처럼) 어느 사이엔지 점점 덜 힘들어지구 아버지 뵈러 가 있을 때말구는 가책두 별루 안 느끼게 되면서 점점.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자기 합리화가 되구, 그러다 영하가 모시는 게 당연하게 생각되기 시작하고.

준하 난 말요 형,

윤하 (O·L) 사흘에 한 번 가 뵙던거 바쁘다는 구실루 일주일 되더니 이 주일 되구…… 인생이란 게 그런 거지. 늙으면 소외되구 외로워지는 게 당연한 거지, 자식은 또 제 자식 제 가정 갖고 정신 없이 제 인생 살어야 하는데, 퇴장하는 중인 부모에게 매달려 살 수가 있나, 그런 거지 뭐. (시선 준하에게 옮긴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지. 그게 자식이라는 입장의 한계지……[26]

그간 노인 문제를 다룬 드라마가 '효'의 강조로 귀결되었던 것과 달리 〈어디로 가나〉는 노인을 돌보는 행위의 구체적인 노동 내용과 부담을 담아낸다. 아버지의 병수발을 미숙의 손에 맡긴 윤하와 준하가 자괴감을 털어놓는 위의 장면은 이들에게 성급한 '불효'의 표찰을 붙이지 않으며 이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냉정한 체념"을 담아낸다.[27] 이와 같은 냉정한 체념은 시아버지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를 반복적으로 토로하며 자신의 삶을 체념하는 미숙의 대사와 대비된다. 작품은 과중한 노동을 수행하는 미숙이 '폭발'하는 장면을 군데군데 삽입하며 돌봄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그려낸다.[28] 절규에 가까운 미숙의 비명이 이어지는 가

26) 김수현, 앞의 책, 107-108면.

27) 김포천 외, 『김수현 드라마에 대하여-한국 TV드라마 40년, 김수현 드라마 30년』, 솔, 2005, 231면.

28) "돌봄자의 돌봄에 따른 부담과 스트레스에 대해 알아보면, 돌봄에 따른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는 전체의 64.2%로 대다수가 돌봄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다. 돌봄 부담의 내용으로는 육체적 피로, 경제적 부담, 심리적 부담 등이다."(장혜경, 앞의 책, 251면.)

운데, 시아버지의 용변을 받아내고 하루 종일 이불과 요를 빨래하는 등 미숙의 반복되는 돌봄 노동을 몽타주한 장면은 이러한 부담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미숙은 시아버지를 집으로 데려오는 순간부터 남편 영하에게 자신이 아버지를 극진히 모실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한다. 자신은 여전히 아버지를 모시는 것이 탐탁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미숙은 친구와의 전화 통화에서 자신이 '효부(孝婦)'라고 칭해지는 것을 강하게 거부한다. ("얘 나 젤 듣기 싫은 말 그 효부란 소리라구 안했니? 나 효부 아냐. 이렇게 치를 부들부들 떨어가며 이를 북북 갈어가며 이게 무슨 효부니.") 용변을 가리지 못하는 시아버지를 타박하고 자신을 왜 이렇게 괴롭히냐고 묻는 미숙의 모습은 익숙하게 재현되어 왔던 '지극정성한' 돌봄과는 차이를 보인다.("아버님 왜 이러세요 정말. .. 간단하게 단추 한번 누르시면 되는 걸 왜 그걸 안하시구 절 이렇게 앨 먹이세요, 네?") 구체적인 돌봄의 시간이 재현되는 과정에서 '효'라는 가치의 강조는 소거되고, 늙음과 병듦, 죽음의 면면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미숙의 돌봄의 시간은 결국 시아버지인 이 교장을 이해하고 그와의 화해를 이뤄내는 '따뜻한' 과정으로 소결되고 만다. 틈나는 대로 자신을 구박하는 시아버지를 도리어 타박하기도 하며 미숙은 시아버지와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가 된다. 왜 용변을 볼 때 자신을 부르지 않았냐고 악다구니를 썼던 미숙은, 시아버지가 자신을 놀라게 하고 싶어 혼자 용변을 처리해보려 했다는 말을 듣고 그의 심정을 가늠하게 되기도 한다. 시아버지 역시 결국 막내며느리인 미숙이 아니면 그 누구에게도 돌봄을 받고 싶지 않다고 주장하며 장남의 집으로 가기를 필사적으로 거부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작품의 후반부는 길어지는 돌봄의 시간에서 미숙과 이 교장이 서로를 이해하고 대면하게 되는 과정을 그려내는 데에 집중한다. 이 교장의 죽음 이후, 장례를 치르는 내내 그 누구보다 서럽게 우는 미숙의 모습은 돌봄이 형성해 낸 이들의 '양도 불가능한' 관계를 가늠케 한다.

www.kci.go.kr

긴 돌봄의 시간 동안 이 교장과 상호작용하며 자신만이 이 교장을 돌볼 수 있게 된 미숙과, 그런 미숙의 돌봄에 깊이 의존하게 되어버린 이 교장 사이에는 타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친밀성이 형성된 것이다.

〈어디로 가나〉가 뇌졸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진 남성 노인과 며느리의 돌봄 관계를 그려냈다면, 〈인생〉은 치매에 걸린 노인을 돌보는 어려움과 함께 노인 장기 요양 시설에 대한 변화되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인생〉은 방영 당시 "우리나라 드라마에선 거의 처음으로 치매에 대해 정면으로 다룬 작품"[29]으로 치매 환자로 인한 가족의 고통과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30] 작품에서는 당대 한국 사회의 '치매'에 대한 문제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 치매 노인이 전체 노인 인구에 사 퍼센트"에 달하며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수는 족히 백만 명이 넘을 것이라는 대사나, 집에 치매 노인이 있다는 것을 다들 쉬쉬하기 때문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가 더 많을 것이라는 추측은 당시 한국의 상황을 직접적인 목소리로 정리하고 있다. 이에 더해 작품은 아직 한국에 제대로 된 치매 노인 장기 요양 치료 시설이 없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근데 더 한심한 건 아직 우리 나라엔 치매 노인 장기 요양 치료 시설 하나 제대루 없다는 거야. 나라 것두 민간 것두.", "그런 거야. 그런 건 나라에서 해줘야는 거 아냐? 아니 세금은 거둬가 다 어따 쓰는 거야 응? 우리 나라 잘난 나라라면서 아니 이렇게 아직두 먼 거야?")

---

29) 「노희경 작가 | 내가 살면서 정말 궁금했던 것들에 대한 드라마」, 『텐아시아』, http://10.asiae.co.kr/Articles/view.php?tsc=06.01.10&a_id=2009081208592519558, 2009.8.11., 2025.5.18. 확인.

30) 작품의 방영 당시 '치매'에 대한 인식은 초보적 단계에 머무르고 있었다. 1990년대 중반 치매라는 용어는 이제 막 사회적으로 널리 쓰이기 시작하였으며, 치매를 질병의 일종으로 인정하고 치료 대상으로 간주하게 된 것 역시 오래되지 않았다. 1996년 기준 치매 노인을 돌보는 가족까지 합쳐 보면 약 72만 5천 명 가량이 치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사회적으로 치매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대처 방안이 제시되는 데에 그치고 있었다.(원영희, 「치매노인, 고달프고 애달픈 가족」,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1999, 151면.)

〈어디로 가나〉에 비교했을 때, 〈인생〉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 '금분'을 돌보는 과정을 비교적 건조하게 그려낸다. 이는 주돌봄자인 맏며느리 '경진'과 시어머니 금분 사이의 양도 불가능한 관계가 부재하는 데에서 기인한다. 〈어디로 가나〉가 결국 돌봄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셋째 며느리와 시아버지 간의 화해와 관계 형성을 향한다면, 〈인생〉에서는 주돌봄자인 맏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어떤 교감이나 소통의 과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작품에서 경진이 시어머니를 돌보는 행위는 주로 다음과 같은 장면으로 묘사된다.

경진	(홱 돌아누으며 이불 머리 끝까지 뒤집어쓰며 몸을 오그리고)
철수	(동시에 감고 있던 눈 뜬다) ……
E	더 커져서 똑똑똑똑똑똑똑똑.
(중략)	
경진	(좀 열받아서 O.L) 나가구 있어요, 그만 하세요. (소리 잠잠)
철수	문으로 움직이는 기척에
경진	(뒤집어썼던 이불 얼굴에서 끌어내리며 불끈 일어나 앉아 문쪽 흘겨보는데 미워서 환장하겠다)[31]

경진의 돌봄 수행은 경진이 영문을 알 수 없는 금분의 행위에 질색하고, 금분은 그런 경진의 돌봄을 거부하는 양상으로 그려진다. 금분은 작중 '파출부 아줌마'를 대하듯이 경진을 대하고 있으며, 목욕이나 투약, 식사 등의 행위에서 경진의 손길을 피한다. 금분은 목욕을 시키는 경진의 손을 때리며 "나 목간할 때 너 나 꼬집는 년이야!"라 말하기도 하며, 경진

31) 김수현, 극본 「인생」, 166면. (김수현, 『김수현 드라마 전집 1 : 단막극 1』, 솔, 2020에서 인용. 이하 김수현의 「인생」의 극본을 직접 인용할 때는 해당 책의 면수를 표기하도록 한다.)

www.kci.go.kr

과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는 경진이 차린 식사를 먹지 않겠다 고집을 피우기도 한다. 경진은 이에 점차 깊은 피로를 느끼게 되고, 약국으로 출근하며 오후 시간 동안의 가사 노동 전반을 '파출부 아줌마'에게 일임한다. 셋째 딸 '은자'는 그런 경진이 금분을 아무 표정 없이 "무생물 보는 거"처럼 바라본다며 서운함을 토로하기도 한다.

〈인생〉에서 경진의 돌봄이 〈어디로 가나〉의 미숙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우선적으로 경진이 맏며느리라는 점에 있다. 〈어디로 가나〉에서 장남에게 부과되는 돌봄 의무를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장남과 맏며느리가 어머니를 돌보는 것을 자연스러운 여기고 있다.("이 세상에서 자기 혼자만 하는 거야? 맏며느리두 팔짜잖어.") 아버지가 3년을 누워있을 때 아내인 금분이 돌봄을 떠맡았던 것이 당연했던 것과 같이, 이제 치매를 앓기 시작한 금분을 돌보는 것은 장남인 '철수'와 그의 아내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이 당연스러운 돌봄의 이양 과정에서 맏며느리와 시어머니 간의 각별한 관계의 형성은 작품의 주된 관심이 되지 않는다. 또한 전업 주부였던 〈어디로 가나〉의 미숙과 달리, 〈인생〉의 경진은 약국을 운영하며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경진은 "십 년이든 이십 년이든 병원 경비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경제적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자신이 자리를 비우는 동안 가사 노동과 맴도는 돌봄을 대신 수행해줄 수 있는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고 있다. 물론 일하는 여성으로서의 경진은 시간과 체력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유급 노동 참여과 집안 내 돌봄 노동 요구에 동시에 할애해야 하는 이중의 과업에 놓여 있다.[32] 그러나 〈인생〉은 그러한 여성의 이중적 과업에 주목하기보

32) 자본주의 사회에서 돌봄노동과 경제활동 참여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여러 연구에 의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안미영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돌봄노동 시간은 경제활동 참여와 부(-)적 영향관계에 있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평일에 평균적인 돌봄 노동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 돌봄 노동이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남성에 비해 6배 가량 높았다.(안미영, 「한국 여성과 남성의 돌봄노동과 경제활동참여」, 『아시아여성연구』 61(1),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22.)

다는, 일을 하는 경진의 돌봄 수행 장면을 축소함으로써 치매 환자 장기 요양 병원으로 금분을 보내는 선택에서의 죄책감을 덜어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진은 치매 환자인 금분에 대한 '시설 보호'를 조심스레 제안한다. 그러나 다른 가족들은 저마다의 이유와 감정으로 경진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경진	(일어나 앉으며) 여보, 우리 어머니 입원시킵시다. (남편 안 보는 채)
철수	…… 입원 아무 소용 없잖아. 그리구 병원에서 치매 노인 치매 증세만으룬 받어주지두 않잖어…… 그리구 잠깐 며칠 입원하시는 게 우리한테 무슨 큰 도움이 돼.
경진	그런 거 아니구 장기 입원요. (시선 내린 채)
철수	…… (보며)
경진	치매 노인 받아주는 노인 전문 병원이 하나 있어요. 나두 가능하면 이런 말 끝까지 안 하구 (울음 차오르며) …… 견뎌 넘길려구 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죽을 거 같아요. 여보 이대루는 내가 죽을 것 같다구요. (남편 올려다보며) 나 좀 살게 해줘요 당신. 병원 경빈 내가 다 해결하께요. 십 년이든 이십 년이든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제발 어머니 좀 어떻게 해줘요.
철수	어머닐 치우잔 말야 지금 당신? (중략) 당신이 나가 그럼. 나 혼자 타 죽을 테니까 당신 나가구 나한테 어머니 치우자는 말은 두 번 다시 입 밖에 내지 마.[33]

옥자	날마다 점점 더 난폭해지는데 누가 와서 며칠씩이나 붙어 있어 줄 거 같아. 감당하기 어려워. 오늘 또 불낼 뻔했어 너.

www.kci.go.kr

33) 김수현, 앞의 책, 238면.

금자 ? …… 세상에 …… (여전히 먹고 있는 언니 보다가) 그래두 안돼. 남들이 알어봐. 오빤 뭐가 되구 또 난 뭐가 돼. 아니 오빠보다 내가 더 문제야. 내 엄마가 노망났는데 자식들이 아무두 안 모시구 병원에 갖다 맡겼다는 게 알려져봐. 우리 집을 뭘루 보구 내 팬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겠어. 내 팬 다 떨어져 나가 언니![34]

철수는 장남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강조하며 아버지가 돌아가신 바로 이 집에서 끝까지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자신의 책무임을 이야기한다. ("아들 자식은 나예요. 어머니에 대한 모든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어쨌든 어머니는 이 집에서 내 앞에서 돌아가셔야 해요……") 이와 같은 철수의 시설 보호 거부에는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지 못하는 것에 대한 깊은 죄책감이 가로놓여 있다. 철수는 "운 나쁘면 집 나가서 못 찾어 들어오시구 헤매다가 교통 사고 만나 돌아가실 수두 있구, 운 거기서 더 나쁘면 집에 불나서 어머니 돌아가시구 다른 사람 다치구 집 태우구" 하는 상황을 상상하고, 집에 불을 내고 방에 소변을 보는 어머니를 더 이상 모시기 어렵다며 괴로워한다. 그러나 동시에 철수는 "귀찮구 힘들구 짐스러워서" 돈으로 어머니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깊은 반감을 표한다. 그의 대사에 담긴 귀찮음과 힘듦, 짐스러움은 다름 아닌 금분의 부돌봄자인 철수가 오래 느껴온 것이다. "왜 정신을 놔버리구 우릴 이렇게 골탕" 먹이냐며 어머니를 원망했던 철수는 깊은 죄책감으로 인해 병원으로 향하는 어머니를 배웅하지 못하고 침실로 들어가고 만다.

이와 같은 철수의 죄책감은 장기 요양 시설에 대한 낮은 신뢰와 두려움에서 기인한다. 대개 시설보호는 장기간의 돌봄 요구를 지닌 사람들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한 사람들이 시설에서 자신의 삶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을 돌봄 제공자들이 두렵게 느

www.kci.go.kr

34) 김수현, 앞의 책, 264-265면.

끼기 때문이다. 돌봄 수행자들은 돌봄 수혜자가 시설에 들어가길 원치 않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집에서 부모를 모시고 시설 보호에 맡기지 않았음을 일종의 성취로 여기기도 한다.[35]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낯선 시설로 보낸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머니를 유기하는 것과 다름 없다는 인식이 발견되는 것이다.

또한 작품이 제작된 1990년대 당시 한국 사회의 "마지막까지 집에서 모시다가 돌아가시게 해야만 그게 제대루 된 자식"이라는 "우리 식의 관습 도덕 윤리"는 이러한 죄책감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인기 연극 배우인 금자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병원에 맡겼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에 자신이 받을 사회적 비난을 짐작하며 어머니를 병원으로 보내는 선택을 극구 반대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결국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는 결단을 내리는 이는 큰 딸인 옥자다. 옥자는 '영국'이라는 다른 장소에서 한국으로 잠시 들어온 자이기에 상대적으로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이제서야 어머니의 상태를 인지하게 된 옥자는 돌봄 노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던 다른 가족들에 비해 '거리'를 두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옥자는 치매에 걸리기 전 어머니의 모습을 바탕으로 어머니가 "자식 힘들게 하는 거 털끝만큼두 원치 않으실 거"라고 말하며 어머니를 시설 보호에 의탁하는 결정을 내린다.

의사	정말 어렵게 결심하구 부모 병원에 넣은 사람들…… (웃으며) 형제나 친척들한테 천하 불효 자식으루 매도되면서 곤욕 많이 치러요. 그런 데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실제루 치매 환자 때문에 겪는 고통 덜어주는 데 별 도움두 안 주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니까.
옥자	(의사 보며) …… 네.

www.kci.go.kr

35) 캐슬린 린치 외, 앞의 책, 110면.

의사	경진일 위해서 참 다행이구나. 누나가 이렇게 협조해주셔서.
경진	(대답 없이 옥자에게 고개)
의사	난 집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치매 부모 우리 병원에 보호 맡기는 자식들 효자라구 생각해요. 경제력만 갖구 되는 일이 아니죠. 경제력 있어두 그냥 구석방에 감금하다시피 해 두거나 아니면 가출한 부모 안 찾구 그대루 모르는 척 하는 나쁜 자식들두 꽤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죄책감 가질 거 없어요. 어머님과 가족들 다 같이를 위해 최선이라구 생각하세요. 우리가 잘 돌봐 드려요. 면회만 열심히 오면 돼요.[36]

〈인생〉은 결국 금분을 치매 환자 장기 요양 병원에 모시는 결말로 끝을 맺는다. 요양 병원의 의사는 시설 보호가 돌보는 가족들과 돌봄을 받는 금분을 위한 '최선'의 선택임을 강조하며 이들의 죄책감을 덜어준다. 이와 같은 결말은 방영 당시 "지금까지의 사회 통념과 어긋나는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령화 추세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다고 호평받은 바 있다.[37] 그러나 작품이 제시하는 것처럼 치매 걸린 어머니를 요양 시설에 보내는 것이 정말 최선의 선택일지는 분명하지 않다. 여러 드라마가 우여곡절 끝에 결혼에 다다른 이들의 '다음'을 보여주지 않는 것처럼, 병원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부분에서 막을 내린 〈인생〉은 시설에서 여생을 보내게 될 어머니의 '다음'을 그리지 않는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대 김수현의 두 편의 특집극은 모두 돌봄 노동의 주체를 선택하는 '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 〈어디로 가나〉가

36) 김수현, 앞의 책, 269-270면.
37) 「〈티비평〉 SBS 창사특집극 〈인생〉」, 『연합뉴스』, 1995.11.1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4004579?sid=103, 2025.5.18. 확인.

www.kci.go.kr

‘어떤 며느리’가 돌봄 제공자가 될 것인지를 고르는 과정에서 출발하고 있다면, 〈인생〉은 맏며느리에게 당연스레 부과되어 왔던 돌봄 의무로부터 치매 노인을 장기 요양 시설에 의탁하는 선택을 보여준다. 물론 이는 돌봄의 주된 제공자를 여성으로 고착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적이다. 〈어디로 가나〉에서 아들들은 아버지를 모시지 않는 아내를 타박하고, 시아버지를 모시지 않는 며느리들은 사랑과 헌신의 가치를 외면하는 ‘나쁜’ 여성이 된다. 〈인생〉은 돌봄의 탈가족화를 상상하고 있으나, 가족들이 어머니를 배웅하는 마지막 장면에 남아 있는 깊은 죄책감은 시설에 의한 돌봄 수행이 이들에게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기도 하다. 1990년대에 이르러 돌봄 노동의 문제를 돌봄 제공자의 선택 과정과 결부지어 그려내고 있다는 점은 이들 작품이 선취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결국 이것은 가족과 여성의 틀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들 작품으로부터 가족과 여성을 벗어난 돌봄은 어떻게 가능해지는 것인지를 고민해볼 수 있다. 돌봄은 “도덕적으로도 거부하기 어렵게 사람들의 감정을 사로잡는다.”[38] 특히 가족 내에서 특정한 애정 관계에 착근되어 있는 돌봄은 그것의 수행에 있어 다양한 감정을 유발한다. ‘요구가 많은, 기쁨을 주는, 스트레스를 받는, 재미있는, 당연한, 진 빠지는, 죄책감, 책임, 애정’ 등의 다양한 어휘로 설명되는 돌봄의 복잡성은 돌봄 수행자와 돌봄 수혜자 모두가 쉽사리 양도될 수 없는 모종의 단단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계는 돌봄에 놓인 여러 과제에 대한 도덕적, 정서적인 딜레마를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과중한 노동량과 육체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시설 보호를 꺼리는 돌봄 수행자의 선택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39]

타인에 대한 감정은 일차적 돌봄 관계에서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돌봄 노동의 전부를 고용을 기반으로 제공하기란 불가능에

38) 캐슬린 린치 외, 앞의 책, 99면.
39) 캐슬린 린치 외, 앞의 책, 120-124면.

www.kci.go.kr

가깝다. 타인에 대한 감정과 관계를 외주(外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돌봄의 기술적 측면이 상품화될 수 있는 것에 반해, 헌신이나 사랑 등 타인 중심성이 강한 관계를 조건으로 하는 돌봄의 질이란 상품화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돌봄의 '양도 불가능성'은 돌봄 제공자가 돌봄의 부담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무한한 돌봄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는 것이나, 성인을 돌봄시설에 보내기를 꺼려하는 태도와 깊이 관련된다.[40] 그렇다면 우리는 가족 내에서 떠돌 수밖에 없는 '친밀한 돌봄'의 무게와 딜레마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가족을 떠나 시설로 돌봄을 이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비폭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김수현의 1990년대 특집극은 가족과 여성의 돌봄에 대한 이와 같은 지점을 사유하도록 만들고 있다.

3.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1996): 돌봄 관계의 역전과 '사랑노동'

돌봄의 제공자와 돌봄의 수혜자의 자리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들이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도 하거니와, 질병과 노화 등의 사건으로 인해 돌봄의 제공자가 언제든지 돌봄의 대상으로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중고령자를 돌보는 가족돌봄은 어린 아이에 대한 돌봄과 달리 돌봄기간이 훨씬 긴 편으로, 이미 중고령의 나이에 진입한 자가 자신보다 더 나이가 많은 중고령자를 돌보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41] 이에 노인 돌봄 수행의 주체가 동시에 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돌봄 제공자 개인에게

40) 캐슬린 린치 외, 앞의 책, 108-109면.
41) 진미정 외, 앞의 책, 58면.

www.kci.go.kr

도 요구되는 태도이다.

노희경의 4부작 MBC 창사특집극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1996)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돌봄 수행의 주체인 동시에 대상이 된 여성을 그려냄으로써, 돌보는/돌봄 받는 여성과 '어머니'의 문제를 탐색하고 있다. 작품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며느리 인희가 자궁암으로 인한 시한부 판정을 받으며 생기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방영 당시 큰 반향을 일으키며 평단의 호평을 받고 1997년 백상예술대상 TV부문 대상과 작품상, 한국방송대상 TV드라마 부문 우수작품상, 방송위원회 대상 최우수상 등을 동시에 수상하기도 했다. 작품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설과 영화, 창극, 연극, 드라마로의 리메이크 등 여러 매체를 넘나들며 활발히 재창작되고 있다.[42]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눈물겨운 사랑의 이야기"[43]가 이토록 오랜 시간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 수용자의 어떤 '보편적인' 감정에 밀접히 접근해 있음을 방증한다.

앞서 살펴본 〈인생〉과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는 며느리의 모습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인생〉과 달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돌보는 노동의 구체적인 장면들과 함께 돌봄 제공자와 돌봄 수혜자 사이의 교감과 소통의 과정을 그려낸다.

할머니 (서운해, 큰소리) 또 죽 줄거지? 나쁜 년.
엄마 (웃음, 죽을 퍼 날라 오며) 노친네. 또 억지 부리네, 기껏

42) 작가 노희경은 1996년 방영된 드라마 판본을 소설로 엮어 출판하였으며,(노희경,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북로그컴퍼니, 2010.) 2011년 영화로 제작 및 개봉되기도 하였다.(〈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민규동, 2011)) 또한 작품은 2017년 tvN에서 동명의 TV드라마로 리메이크되기도 했으며, 원작 극본을 바탕으로 한 연극 역시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제작 및 상연되고 있다.

43) 「드라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경향신문』, 1996.12.2.

www.kci.go.kr

밥 싫다구 죽 끓이라며....

할머니 이년이....

할머니, 여전히 화가 안 풀리는지 씩씩대지만, 엄마, 이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의자에 앉아, 그냥 하던 대로 할머니 숟가락을 받아서는 죽을 퍼, 후후 불어 식힌 다음, '아이구, 맛나네' 하며 할머니에게 먹여준다. 그래도 할머니는 화가 안 풀려 눈을 흘기며 받아먹고.[44]

엄마, 거실 유리창으로 와서는 마당을 나가는 정철 보는데, 그때, 할머니, 더는 못 참고 일어나 엄마 뒤쪽으로 와 갑자기 머리채를 잡아끌며.

할머니 밥 안줘? 이년! 시애미를 똥통에 똥덩어리만도 못하게 여기는 이년, 이 못된 년.

엄마 (머리 잡은 할머니 손목을 잡고는, 나무라듯 말하지만 그리 화나는 표정은 아니다) 아이구, 머리야. 노친네 기운도 좋지. 좀 놔요. 머리 다 뜯기네.

할머니 (계속 머리채를 잡고) 지들만 먹고, 밥 안줘? 이년![45]

위의 장면은 치매에 걸린 노인에 대한 돌봄을 수행하는 주돌봄자의 노동을 구체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인희'('엄마')는 시어머니('할머니')의 막무가내와 같은 모습에 크게 동요하지 않고 웃거나 가볍게 나무라는 모습을 보인다. 곧이어 시어머니는 색색의 공이 가득한 투명 상자에서 아이 같이 흰 공과 노란 공을 들었다 내려놓는 장난을 치고, 인희에게 자신을 업어달라는 강짜를 부린다. 인희는 허리가 아파 안된다고 말하지만 곧 할머니를 업고 몸을 흔들며 노래를 불러주기도 한다. 시종일관 자신을 찾는

44) 노희경,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2017+1996 (노희경 대본집)』, 북로그컴퍼니, 2018, 184-185면. (이하 노희경의 극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직접 인용할 때는 위 책의 인용 면수를 표기하도록 한다.)

45) 노희경, 앞의 책, 186면.

www.kci.go.kr

시어머니에게 “연애할라고 날 이리도 불러쌓나”라고 응답하거나, “아이한테 하듯” 시어머니를 예뻐 하는 인희의 모습에는 이들 사이에 깊고도 친밀한 의존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이와 같은 인희의 돌봄은 ‘사랑노동’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캐슬린 린치에 따르면 사랑관계는 “물려받거나 선택한 의존관계 내지 상호의존관계에서 생기는 높은 상호의존성 관계”이자 기본적인 우리의 돌봄관계이다. 돌봄 수행자는 애정과 헌신, 배려에 의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자원을 실질적으로 투자한다. 이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같은 깊은 의존 관계에서 발생하는 “순수한 형태의 의무관계로 가시화”된다. 이와 같은 사랑노동은 인간관계의 돌봄 차원에서 발달하는 유대관계와 강한 상호성(mutuality)의 관계로 특징지어진다. 사랑노동은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관여와 헌신을 보이는 이차적 돌봄 노동과 구분되며, 사랑노동의 수행자는 깊은 의존 관계를 바탕으로 감정노동과 육체노동, 정신노동 전반을 수행한다. 이는 본질적으로 타인 중심이 될 수밖에 없으며 돌봄 수행자는 밀도 높은 시간 투자와 육체적 중노동 등 사랑노동으로 인한 순손실을 감안해야만 한다. 한편 돌봄의 수혜자는 질병이나 노화로 인해 매우 취약해진 상황에서도 돌봄 수행자에 대한 권력과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성에서 발생하는 긴장과 갈등을 적절히 통제·관리하는 것 역시 사랑노동에 수반되는 실제적 활동이 된다.[46]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에 대한 인희의 돌봄 노동을 묘사하는 장면들은, 이러한 사랑노동의 강한 상호성을 바탕으로 한 돌봄 수행자-돌봄 수혜자 간의 지속적인 갈등과 그 해소 과정을 담아내고 있다.

할머니 (연시를 먹다가, 연시를 보고, 갑자기 분해 눈물까지 그렁

www.kci.go.kr

46) 캐슬린 린치 외, 앞의 책, 74-79면.

해) 이 우라질 년. 시애미한테 개똥을 줘? (하며, 걸레질하는 엄마 등에 연시를 던지고) 너나 먹어라, 이년, 너 먹어! 이 나쁜 년.

엄마, 걸레질을 하다가 놀란 얼굴로 뒤돌며, 제 등을 보려 하며

엄마 뭐야, 이게. (터진 감 보고) 못 살어, 내가.
할머니 이 개가 물어갈 년. 내가 아무것두 모른다고....
엄마 아이고, 증말. 내가 어쨌다구 저런대. (바닥에 떨어진 연시를 보며) 이게 다 뭐래. 아이고 아까워라.
할머니 (일어나며) 냄새 나는 개똥을... 에라, 이 당나라 당년 같은 년!
엄마 (터진 연시를 주워 먹으며) 증말, 왜 이런대... 이거 아까워서 어째.
할머니 드런 년. 그게 맛있냐?
엄마 (할머니를 보고, 버럭) 그럼, 맛나지.[47]

위의 장면이 보여주듯, 인희와 시어머니 사이의 관계는 지속적인 긴장 속에 놓여 있다. 이는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치매 환자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돌봄의 수혜자가 돌봄의 수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통제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돌봄 수혜자는 저마다의 요구를 갖추고 있는 존재이며, 아무리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돌봄에 있어 자신의 선호와 욕구를 표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48] 장기간 시어머니를 돌보며 상호작용 해온 인희는 돌봄 대상자인 시어머니의 요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관계적 지식과 신뢰를 갖추고 있다. 그렇기에 인희는 시어머니의 돌발적인 행동에 크게 당황하지 않으며, 오히려 “왜 이 여잘 못

47) 노희경, 앞의 책, 211면.
48) 캐슬린 린치 외, 앞의 책, 186-188면.

www.kci.go.kr

잡아먹어 평생을 그래요, 평생을! 이 노친네야, 도대체 뭐가 못마땅해 그러냐구, 말해봐!"라 윽박지르는 남편 정철에게 황당해하는 태도를 보인다.

주돌봄자인 인희는 시어머니와 양도불가능한 관계를 맺으며 사랑노동을 수행하는 유일한 자이기에, 인희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시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부재하다는 사실에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 시어머니를 떠맡을 수 있는 유일한 자인 인희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남겨질 시어머니를 걱정하며 그를 죽이려 한다.

> 엄마, 자는 할머니 얼굴에 눈물이 그렁해 입술을 부르르 떨며 보다가는 손에 들려 있는 이불자락을 할머니 목까지 덮어주다가, 다시 멈칫하고 할머니를 한 번 더 보고는 눈물을 주룩 흘린다. 그러다 이내 이불을 머리까지 씌우고 할머니가 숨을 못 쉬게 위에서 덮는다. 엄마, 이를 앙다물고 온 힘을 다해 할머니를 누른다. 단단히 죽일 결심을 하고서.
>
> (중략)
>
> 엄마 (맘에 담아뒀던 모든 걸 터뜨리며, 악을 쓰고 울면서) 어머니, 어머니! 나랑 같이 죽자! 같이 죽자! 나 죽으면 어떻게 살래?! 나랑 같이 죽자! 애들 고생 그만 시키고 나랑 같이 죽자! 어머니! (넋 놓고 울고)[49]
>
> 엄마 (놀라, 할머니를 보고 정신이 드는가 싶어 눈물이 난다) ... 어머니, 아까 미안해요. 내 맘 알죠?
>
> 할머니 (눈물이 나는 걸 참고) ....
>
> 엄마 (손을 잡고, 울며) 이런 말 하는 거 아닌데... 정신 드실 때 혀라도 깨물어, 나 따라와요. 아범이랑 애들 고생시키지 말고, 기다릴게. (손을 잡아 얼굴에 대며 울고) 아이고, 어머니...[50]

www.kci.go.kr

49) 노희경, 앞의 책, 304-306면.

시어머니가 외출하고 돌아온 인희를 몽둥이로 내리치는 사건이 발생하자, 가족들은 더 이상 할머니를 이해하고 돌보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만다. 이는 인희가 차라리 시어머니를 죽이고자 하는 선택으로 이어진다. 인희가 시어머니를 죽이려 시도하는 장면과 함께 인희는 시어머니와의 돌봄의 시간을 회상한다. 각 회차에서 보였던 할머니의 모습이 플래시백으로 제시되며, 인희는 남은 힘을 다해 할머니를 누른다. 자신과 함께 죽자거나, 자신이 죽으면 혀라도 깨물어 얼른 자신을 따라오라는 인희의 처절한 대사에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와 유일한 돌봄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인희가 짊어진 무게가 내포되어 있다. 시어머니에 대한 돌봄을 수행함과 동시에 남편과 자녀들에 대한 비가시적인 돌봄을 수행하고 있었던 인희에게, 치매에 걸린 노인에 대한 돌봄 의무가 남은 가족에게 전이되는 것은 또 하나의 괴로움이었던 것이다.

이는 최근 한국 사회에 대두하고 있는 '영 케어러(young carer)'의 문제를 상기시킨다. 극중 인희가 세상을 떠난 이후 어머니(할머니)를 돌볼 수 있는 가족은 인희의 남편인 정철과 그의 아들, 딸로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정철은 동료에게 자신의 무능력함을 한탄하며 자신은 자신 한 몸도 간수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고 털어놓는다.("생각해보니까 남자란 인간이 참 쓸모가 없어. 젊어 일할 때나 쓸데가 있을까 늙어지면 쓰레기야. 평생 지 한 몸 간수하는 법도 배우지 못하구 살구. 도대체 하는 게 없어. 밥을 할 줄 아나, 빨래를 할 줄 아나, 애들을 키울 줄 아나.") 이는 당시 남성들이 돌봄의 주된 수행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와도 연관되어 있다. 돌봄 노동의 영역에 가사 노동의 대다수가 포함되어 있기에, 이를 수행하기 어려워하는 남성들이 돌봄의 주제공자가 되기 어려운 것이다. 청소, 빨래, 식사 준비 등 기본적인 집안일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가족은 딸 연수

www.kci.go.kr

50) 노희경, 앞의 책, 308면.

뿐이지만, 연수는 명문대를 졸업한 대기업 직장인으로 사회에서의 유급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미혼의 연수가 '영 케어러'가 되거나, 혹은 어머니(할머니)에 대한 돌봄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할 상황에서 인희는 시어머니를 죽이고자 선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51]

한편 인희가 자궁암 말기 환자임이 밝혀지며, 인희는 돌봄 수행자인 동시에 돌봄 수혜자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와 동시에 인희는 '며느리'를 넘어서 비로소 '아내'와 '어머니'로 그려지기 시작한다. 인희의 병세가 밝혀지기 전의 인희는 주로 시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며느리로 그려진다. 가족들이 모두 인희를 '남 일' 같이 대하는 무관심한 상황에서, 인희에게 아내나 어머니의 이미지가 거의 덧입혀지지 않는 것이다. 인희는 시어머니를 돌보는 데에 그치지 않고, 아내와 어머니로서 남편과 자녀에 대한 돌봄 또한 일상적으로 수행하며 가족 전체의 돌봄을 도맡고 있었다. 이러한 돌봄은 가사 노동의 영역으로 비치며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비가시화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시한부 판정을 받은 이후 인희는 돌봄 수혜자가 되는 동시에 아내와 어머니가 되는 이중적인 위치에 놓인다. 죽음의 문턱을 눈앞에 두고 '돌봄의 대상으로서의 어머니/아내'가 된 인희에게 남은 가족들은 뒤늦은 사랑과 후회를 느끼게 된다.

시종 무뚝뚝했던 남편 정철은 아내의 걸레를 빼앗아 딸 연수에게 대신 청소를 시키며, 왜 엄마의 집안일을 거들지 않느냐고 호통을 친다.("왜 기집애가 집일 하나 안 거들어, 엉? 니 엄마가 종이냐, 니 눈엔 니 엄마가 종으루 보여, 임마!") 대학 입시시험을 마친 후 밖으로만 나돌았던 아들 정수는 어머니에게 그간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며, 어머니에게 받은 만큼의 사랑을 보답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자신을 탓한다. 딸 연수는 어머니가 없이 살 수가 없다는 각별한 마음을 표하며 인희의 곁을 맴돈다. 이들은 시한부 삶이라는 '극적인' 상황을 앞에 두고서 가족 내의 주돌봄자,

51) 한국 사회의 '영 케어러'에 대해서는 생태적지혜연구소협동조합, 『돌봄의 시간들 : 돌봄에 관한 9가지 정동적 시선』, 모시는사람들, 2023, 126-153면 참조.

www.kci.go.kr

혹은 돌봄 노동자에 지나지 않았던 여성을 '어머니/아내'로서 뒤늦게 발견하게 된 것이다.

앞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 수용층의 '보편적' 감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뒤늦게 발견한 어머니'의 재현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자신의 지난날을 반성하고 슬퍼하며 마지막을 충분히 준비하려는 가족들의 노력 앞에서 이러한 발견은 너무나 낭만적으로 그려진다. 이제 어머니/아내로서 재인식된 인희는 그간 줄곧 해오던 돌봄을 수행함에 있어 가족 구성원에게 깊은 슬픔과 연민을 주는 자가 된다. 이는 비단 인희가 겪게 되는 신체적인 고통, 암성 통증에서 기인한 것만은 아니다. 이전에는 여성으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했던 각종 돌봄의 노동이 이제 '우리 어머니/아내'의 노동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아픈 어머니가 노동을 한다는 인식과는 차이를 가진다.

한편 인희가 돌봄의 수혜자가 되었다고 할 때, 인희를 돌보는 자는 누구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인희의 (직계) 가족들은 인희에 대한 사랑과 후회를 뒤늦게 표하고 있지만, 이들이 인희를 돌보는 장면은 극중에서 딱히 등장하지 않는다. 극중 돌봄의 연쇄는 인희의 남동생의 아내, 즉 올케인 '근덕댁'에게 이어지고 있다.

정철	(술잔을 놓고, 처남댁에게) 나, 처남댁한테 부탁 있어 왔어요.
근덕댁	(애매하게 웃으며) 저 같은 거한테 무슨 ...
정철	... 우리 마누라 수술 들어가는데, 병간호 좀 도와줘요. 워낙 깔끔한 사람이라 남 손 빌리는 거 싫어할 것 같아서 그런데.[52]

수술을 앞두고 정철은 근덕댁을 찾아가 인희의 간병을 부탁한다. 포장

www.kci.go.kr

52) 노희경, 앞의 책, 230면.

마차를 운영하는 근덕댁은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인희를 지극히 간병한다. 인희가 퇴원하게 된 후에도 근덕댁은 인희의 집에 머물며 인희의 시어머니에 대한 돌봄을 함께 맡게 된다. 인희와 사돈 격인 인희의 시어머니를 동시에 간병하게 된 근덕댁의 상황은, 돌봄이 또 다른 '건강한' 여성 돌봄 노동자에게 이어지고 있을 뿐임을 드러낸다.

인희는 자신이 돌보아온 시어머니와 자녀로부터 모두 단절된 채, 즉 가족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 새로 지어진 일산 집을 미리 꾸며놓은 정철은 인희를 '일산 집'으로 데려간다. 정철과 인희, 정수와 연수가 함께 일산 집으로 향하지만, 인희는 일산 집 앞에서 정수와 연수 각각에게 작별 인사를 고한 후 그들을 되돌려 보낸다. 정철과 인희는 새로 지어진 일산의 집에서 가족 구성원인 남편-아내의 관계가 아닌 오직 연인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철은 인희에게 상을 차려주고 인희를 씻겨준다. 서로 입을 맞추며, 책을 읽어주고 부끄러운 듯 침대에 눕는 이들의 몽타주는 "꼭 신혼여행 온 거 같"이 제시되며, 인희를 돌봄 수행의 의무로부터 아주 먼 거리에 위치시킨다. 모든 돌봄의 의무로부터 인희가 해방되는 것은 곧 예견된 죽음 앞에서라는 이 절망적인 비극성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수식어와 함께 낭만화될 뿐이다.

2017년 리메이크된 동명의 드라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역시 이와 같은 구조를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리메이크된 판본에서는 극중 어머니의 이름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된장찌개를 끓일 수 있어야 시집을 갈 수 있다는 등의 원작의 대사가 몇 부분 수정되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서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53] 이는 이 시대에 부재하는 어머니의 자리를 탐색함으로써 "조용히, 담담히, 우리를 지켜준 우리의

53)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의 개작 양상에 대해서는 채백·강승화·허윤철, 「한국 텔레비전 가족 드라마를 통해 본 1990년대 이후 대인 소통과 관계의 변화」, 『한국언론정보학보』 103, 한국언론정보학회, 2020 참조.

www.kci.go.kr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가족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작가의 의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54] 돌봄의 제공자인 여성이 돌봄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그는 비로소 가족 구성원들에게 돌봄의 무게를 인정받으며 어머니/아내로서 새롭게 인식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가져오는 것은 결국 그가 감당해왔던 돌봄의 숭고함에 대한 뒤늦은 확인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어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신화화하게 되며, 그와의 이별 역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으로 그려지는 것이다.[55]

작품에서 말하는 그 '아름다움'의 낭만성을 잠시 걷어내면, 그 자리에는 무엇이 남을 수 있는가? 이 지점에서 작품의 주변부처럼 배치되어 있던, 딸 연수의 사랑과 이별 서사에 주목해볼 수 있다. 연수는 '영석'과의 불륜 관계를 정리하며, "당신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나, 당신은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나"를 많이 생각해보았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연수는 사랑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며, 자신은 영석을, 영석은 자신을 책임져줄 수 없는 존재임을 밝힌다. 연수의 대사는 이전에 '인철'이 연수에게 했던 조언인 "사랑은 책임이야. 적어도 책임질려고 하는 노력이야. ... 책임 없는 사랑은 가벼워서 봄바람에도 날라가 바람 되고, 먼지 돼."와 이어진다. 그렇다면 사랑에 반드시 뒤따르는 책임, 또한 기꺼이 책임을 지려고 하는 노력인 사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조안 트론토는 민주적 돌봄을 책임의 부여와 분배의 문제로 이해하며 돌봄 책임을 결정하고 배분하는 정치적 과정에 주목한다. 민주적 돌봄 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누가 돌봄 책임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지, 또한 그와 같은 책임을 할당하는 자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

54) 노희경, 앞의 책, 4-5면.

55) 노희경의 TV드라마에 나타난 '돌봄'에 주목한 황지연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에 나타난 '어머니'의 위치에 대해, 작품 내에서 어머니의 돌봄 노동이 "지저분하고 곤혹스러운 것"이 됨으로써 돌봄이 여성에게 편중되어 왔음을 시각적으로 재현하고 '어머니'를 노동자로서 그려낸다고 해석한다.(황지연, 「1990년대 노희경 TV드라마의 돌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5, 69-77면.)

www.kci.go.kr

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책임의 정치하에서 시민으로서의 '우리'는 우리 안의 "다른 역량을 지닌 사람을 돌보는 우리의 책임을 받아들"일 수 있다. 트론토는 돌봄과 책임을 연결함으로써, 몇몇의 사람들이 어떻게 더 많은 책임을 떠맡게 되었는지, 동시에 일부 사람들이 어떻게 돌봄으로부터 면제되는 '특권적 무책임'의 위치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사유하게 한다.56)

여기서의 책임은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응답의 윤리이자 상호적인 돌봄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단초로 작동할 수 있다. 돌봄이 여성에게 의무로서 부과되어 왔다고 할 때, 상호 간의 책임이라는 새로운 구조 하에서 우리는 돌봄을 어떻게 재사유할 수 있을까. 상호 책임 하에서 돌봄의 자율성이라는 공간은 실재할 수 있는 것일까. 특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에서 그리는 것과 같은 정신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이는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책임과 사랑의 관계 하에서 돌봄을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위와 같은 질문은 결국 우리 시대의 돌봄 서사가 풀어야 할 과제를 남기고 있다.

4. 돌봄의 무게와 재현의 환상을 넘어

이상으로 살펴본 김수현과 노희경의 1990년대 특집극은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짚어냄으로써 늙음과 병듦, 죽음이 자리할 수 있는 공간을 성찰케 하며, '효'로 귀결되어 왔던 노인 서사에서 벗어나 돌봄을 둘러싼 실제적인 딜레마를 면밀히 탐색하고 있다. 동시에 이들 작품은 여성의 돌봄 노동을 당연시함으로써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을 고착시키기도 했다. 노년층에 대한 돌봄을 직접적인 재현 대상으로 삼고 있는 1990년대의 작품은 2025년 현재 현실에서 수행되고 있는 돌봄 노동의 형태와 여전히

www.kci.go.kr

56) 조안 트론토, 김희강·나상원 옮김, 『돌봄 민주주의』, 아포리아, 2014, 129-138면.

연관되어 있으며, 돌봄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시각을 탐색하는 데에 유효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글에서 다룬 노인 돌봄의 수행과 재현은 과거의 문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여기의 현실을 사유하게 만드는 현재 진행형의 질문을 남기고 있다.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문제는 노년기 돌봄 대상자의 취약성을 재현하는 태도와 방식에 대한 것이다. 2006년의 조사에 따르면 돌봄이 필요한 노인 1명 당 돌봄 노동 시간의 총량은 전체 평균 15시간 10분으로, 돌봄 수행자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하루의 거의 모든 시간을 노인 돌봄에 할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긴 시간의 돌봄 수행에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노동이 포함되어 있다. 개인 위생, 이동, 식사, 배설, 가사활동, 외출, 치료 및 재활, 정서적 활동, 감시관련 활동 등이 노인 돌봄의 내용을 구성한다. 그 중 가장 긴 소요 시간을 차지하는 것은 가사활동으로, 빨래와 세탁, 식사 준비와 청소 등을 포함한다. 이외에도 식사와 정서적 활동(말벗, 미디어 이용 등)에 약 2시간 30분이 소요되고 있다.[57]

이와 같이 다양한 노인 돌봄의 내용 중, TV드라마에 '채택'되는 돌봄의 종류는 일정한 전형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 살펴본 세 편의 작품에도 이러한 전형적인 노인 돌봄 재현이 드러나는데, 먼저 〈어디로 가나〉에서의 배설 관련 돌봄 노동 재현을 들 수 있다. 인간의 폐기물, 즉 기저귀나 요강, 신체에서 나온 배설물을 다뤄야 하는 돌봄은 바로 그 배설의 성격으로 인해 무익하고 낮은 수준의 노동으로 인식되어 왔다.[58]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신체는 "갈 데까지 간" 매우 취약한 상태로 받아들여진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속하는 배설 관련 활동은 노인 돌봄에 있어 큰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손꼽히곤 한다. 동시에 배설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는 돌봄 대상자에게 깊은 수치심을 안겨주는 것이기도 하다. 돌봄 대상자가 배설 돌봄을 거부하고, 기저귀조차 받아들이지

57) 장혜경 외, 앞의 책, 289-297면.
58) 캐슬린 린치 외, 앞의 책, 142면.

www.kci.go.kr

않는 상황이 잦은 이유이다.[59]

이 교장은 스스로 배설을 조절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깊은 자괴감을 느끼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다. 동시에 미숙은 배설 보조를 받지 않으려는 이 교장을 탓하며 코를 막고 매일 같이 이불과 요를 세탁해 갈아 끼운다. 특히 배설 돌봄의 문제는 시아버지-며느리 관계에서 더욱 민감한 문제가 된다. 이 교장은 미숙의 도움을 거절하는 이유가 "니년한테 아랫도리 뵈기 싫어서"임을 밝히고, 맥이 빠진 미숙은 "안 볼께요, 아버님. 안 보구 해드릴께요."라며 제발 자신의 도움을 받아 변기에 배설할 것을 요청한다.

〈어디로 가나〉에서 재현되는 미숙의 돌봄 노동은 대부분 이 같은 배설 관련 돌봄에 관련되어 있다. 2006년 기준 하루 평균 15시간에 달하는 노인 돌봄의 시간에서 배설 돌봄이 차지하는 시간은 평균 1시간으로, 이는 전체 돌봄 시간의 약 6.7%에 불과하다. 그러나 노년기 돌봄 대상자의 취약성을 재현하는 데 있어, 배설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신체적 취약성의 묘사는 특히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를 시청각적인 충격을 주는 과잉 재현으로 보아야 할지, 혹은 피할 수 없는 돌봄의 단면으로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섬세한 고민과 접근이 필요하다.

더하여 〈인생〉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모두 치매 노인의 돌봄에 관한 전형적인 재현을 보여주고 있다. '치매 서사'는 치매에 걸린 인물의 동일 정체성을 분열시키며, 치매에 걸린 인물은 스스로 서사를 구성하는 주체로 기능하지 못한다. "치매에 걸린 인물의 자기성은 바로 그와 삶을 함께 한 가족에 의해 구성된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60] 〈인생〉에서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에 대한 '감시 노동'이 두드러진다. 인지 능력이 저하된 치매 노인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거나 집 안

59) 무라세 다카오, 김영현 옮김, 『돌봄, 동기화, 자유 : 자유를 빼앗지 않는 돌봄이 가능할까』, 다다서재, 2024, 42-43면.

60) 엄미옥, 「치매서사에 나타난 이야기의 윤리」, 『현대문학이론연구』 76, 현대문학이론학회, 2019, 154-155면.

www.kci.go.kr

에서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잦으므로, 하루 24시간을 그의 곁에 맴돌며 지켜보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인생〉에서 금분은 “날마다 새록새록 이상한 짓하면서 날마다 더 나빠지는” 모양새를 보인다. 변기를 제대로 내리지 않거나 가스불에 치마를 말려 집에 불을 낼 뻔 하는 일이 잦으며, 종종 남편이 살아 있었을 때 함께 지냈던 조치원에 간다고 하며 가족들 몰래 개인 택시를 타기도 한다. 특히 치매를 재현하는 서사에서, 주돌봄자의 시선을 잠시 피한 사이 돌봄 대상자가 사라지는 상황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요 장면 중 하나다. “목욕시키구 점심 멕이구 세탁기 돌린 거 빨래 잠깐 꺼내는 동안 사라진” 금분을 찾기 위해 가족들은 온 동네를 찾아 헤매며, 은자는 “사람 졸도하겠어. 진짜 무슨 소릴 듣게 할려구 이래요”라 하소연하기도 한다.

한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치매 노인의 간헐적인 폭력행동을 시청각적인 충격과 함께 그려낸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는 연시를 잘 먹던 중 갑자기 “개똥”이라며 인희에게 연시를 집어던지며, 방 안에 있던 요강 단지를 인희에게 던져 “오줌과 밥알로 범벅이 되어”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더하여 갑작스레 “우리 아들 병원 차려준다드니, 병원두 안 차려주고 빈 몸으로 시집오고, 이 나쁜 년”이라는 폭언을 퍼부으며, 인희의 머리를 잡고 “죽어, 이년, 죽어!”를 반복해 외치기도 한다. 외출하고 돌아온 인희의 머리를 난데없이 다듬잇방망이로 가격하는 장면은 가족들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까지 치매 환자의 ‘폭력성’을 전달하게 된다.

이러한 장면이 담아내는 내용은 돌봄의 일환으로서 자연스럽게 여겨질 수 있으나, 그것이 곧 노인 돌봄과 노년층의 취약성에 대한 ‘공정한 재현’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정한 재현이란, “어떤 집단에 속한 사람이 변화를 겪는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다른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거나 희생시키지 않는 재현”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현에 등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과 함께 제작 과정에서 이들과 소통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61] 돌봄 수행의 무게를 강조하기 위한 시청각적 충

www.kci.go.kr

격의 재현은, 노년층이나 치매 환자의 취약성에 대한 특정한 관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어디로 가나〉와 〈인생〉,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공통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가족을 그리고 있다. 〈어디로 가나〉의 이 교장은 지역 유지로 많은 재산을 축적한 자이며, 이 교장의 아들들은 의사나 대기업 이사 등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 셋째 아들이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지만, 이들마저도 극 후반에서 부동산 투기로 중산층에 진입했음이 제시된다. 〈인생〉은 스타 배우나 약사 등의 직업을 가진 여성을 그리고 있으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에서 역시 남편이 "평생 먹고 살 정도의 재산"을 가진 의사로 그려진다. 〈인생〉에서 은자는 자신들의 경우는 그나마 모두 살 만하니까 자식들이 시간제로라도 돌아가며 돌볼 수 있지만, 생계가 고달픈 이들은 그렇지 못하기에 결국 노인을 내다 버리거나 가출한 부모를 찾지 않는 이들이 생긴다고 말한다. 이 같은 인물들의 경제적 배경은, '돌봄을 사유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생존의 절박함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만 하는가'라는 씁쓸한 물음을 남긴다.

이 글의 분석은 전체적으로 돌봄 수행자에게 초점을 맞추어 가족 내 여성에게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돌봄의 구조를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특정 인물이 가족 구성원 전체의 돌봄을 떠맡게 되거나 돌봄 수행자에서 돌봄 수혜자로 위치가 전환되는 과정을 통해 돌봄 노동이 젠더적으로 편중되는 방식을 들여다보았다. 여성의 돌봄 수행이 당연스러운 것인 동시에 숭고한 것으로 창조되는 돌봄 수행의 '환상'은 결국 여성의 돌봄 수행을 자연화하며 가족 공동체를 공고히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돌봄의 환상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태도가 요구되는가? 남성이 주돌봄자로 설정이 된다면 이러한 환상은 쉽게 사라지게 되는 것인가? 돌봄의 탈가족화를 넘어 '탈시설화'가 이미 논

61) 김은정, 『치유라는 이름의 폭력 : 근현대 한국에서 장애, 젠더, 성의 재활과 정치』, 후마니타스, 2022, 341면.

www.kci.go.kr

의되고 있는 현재에 이르러, 돌봄을 가족과 시설의 바깥으로 위치시키는 것은 충분한 윤리적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곧 수행 주체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돌봄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돌봄의 수행자뿐만 아니라 수혜자의 위치, 이들이 맺는 관계의 구조적인 조건을 함께 재구성하는 상상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정동적 평등'의 개념을 떠올려볼 수 있다. 정동적 평등은 돌봄의 제공자와 수혜자 사이의 위계나 도덕적 의무로서의 돌봄이 아닌, 모든 이가 취약성을 지닌 존재로서 관계 속에서 평등하게 돌보고 돌봄받을 수 있는 조건을 상상케 한다. 돌봄에서의 정동적 평등을 위해서는 돌봄 수행에서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돌봄 수혜에 가로놓인 불평등을 탐색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수준의 사랑과 돌봄, 연대를 경험하는 상태가 필요하다.62)

TV드라마는 돌봄의 젠더화된 구조를 재현하는 동시에 이를 낯설게 보여주며 돌봄의 근본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균열의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글에서 다룬 세 편의 작품은 돌봄 수행자에게 가해지는 무게와 함께 여성의 돌봄 노동을 자연화하며 재현 대상에 대한 특정한 취약성을 덧씌우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정동적 평등이라는 하나의 이상에 가까워지기 위한 질문을 던지게끔 만든다. 이 글에서 다룬 작품들이 남기는, 돌봄 수행자의 입장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는 "의존적이고 취약한 상태를 표준으로 사회를 다시 설정"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의존성과 취약성을 인간의 보편적인 조건으로 재설정하는 상상력, 즉 돌봄을 수직적·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 순환하는 관계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감각이 요청되는 것이다. 연쇄적인 돌봄의 관계망 안에서 돌봄 관계를 양방향적인 것으로 규정할 때, 우리는 모든 인간이 지닌 의존성과 취약성을 인정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고 연대할 가능성을 찾

www.kci.go.kr

62) 캐슬린 린치 외, 앞의 책, 8-12면.

을 수 있을 것이다.[63]

www.kci.go.kr

63) 생태적지혜연구소협동조합, 앞의 책, 64-65면.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노희경, 극본「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노희경,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2017+1996 (노희경 대본집)』, 북로그컴퍼니, 2018.)

김수현, 극본「어디로 가나」, (김수현, 『김수현 특집극 1 어디로 가나 혼수』, 다차원북스, 2012.)

김수현, 극본「인생」, (김수현, 『김수현 드라마 전집 1 : 단막극 1』, 솔, 2020.)

박종 연출, 노희경 극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MBC, 1996.12.2.~12.3.)

곽영범 연출, 김수현 극본, <어디로 가나>(SBS, 1992.11.13.)

『경향신문』

2. 단행본

김은정, 『치유라는 이름의 폭력 : 근현대 한국에서 장애, 젠더, 성의 재활과 정치』, 후마니타스, 2022.

김포천 외, 『김수현 드라마에 대하여-한국 TV 드라마 40년, 김수현 드라마 30』, 솔, 2005.

장혜경 외, 『가족 내 돌봄노동 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2006.

진미정 외, 『가족과 돌봄』, 하우, 2022.

생태적지혜연구소협동조합, 『돌봄의 시간들 : 돌봄에 관한 9가지 정동적 시선』, 모시는사람들, 202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편, 『가족 내 노인돌봄현황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

더 케어 컬렉티브, 정소영 옮김, 『돌봄선언』, 니케북스, 2021.

무라세 다카오, 김영현 옮김, 『돌봄, 동기화, 자유 : 자유를 빼앗지 않는 돌봄이 가능할까』, 다다서재, 2024.

우에노 지즈코, 조승미・이혜진・공영주 옮김, 『돌봄의 사회학』, 오월의 봄, 2024.

조안 트론토, 김희강・나상원 옮김, 『돌봄 민주주의』, 아포리아, 2014.

캐슬린 린치 외, 강순원 옮김, 『정동적 평등 : 누가 돌봄을 수행하는가』, 한울아카데미, 2016.

www.kci.go.kr

3. 논문 및 기타

김명은, 「김수현 단막 홈드라마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김미라 · 배은경, 「가족과 젠더를 넘어 돌봄의 관계를 상상하기 —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과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54, 한국여성문학회, 2021.

박미란, 「TV드라마 <눈이 부시게>에 나타난 반전의 구조와 위로의 방식」, 『한국극예술연구』 68, 한국극예술학회, 2020.

백경선, 「문학과 가족(정):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타난 가족상 — 노희경의 특집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21,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6.

_____, 「김수현 가족드라마의 가족 담론 고찰 — <엄마가 뿔났다>, <인생은 아름다워>, <무자식 상팔자>를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50, 한국극예술학회, 2015.

_____, 「텔레비전드라마 속 노년과 청년의 연대와 그 가능성 — <나빌레라>와 <눈이 부시게>를 중심으로」, 『어문론총』 94, 한국문학언어학회, 2022.

백지은, 「빅데이터를 통한 '노인요양시설' 관련 언론기사 분석」, 『인문사회과학연구』 30(4),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2.

백현미, 「'이후의 가족드라마'와 친밀의 정동—<나의 아저씨>를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79, 한국극예술학회, 2023.

송치혁, 「6.25 특집극 <최후의 증인> 연구」, 『공연문화연구』 42, 한국공연문화학회, 2021.

서선희, 「1970년대 이래의 한국 가족의 변화와 앞으로의 변화 방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1), 한국가족관계학회, 1999.

안미영, 「한국 여성과 남성의 돌봄노동과 경제활동참여」, 『아시아여성연구』 61(1),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22.

안숙영, 「돌봄노동의 여성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여성학』 34(2), 한국여성학회, 2018.

엄미옥, 「치매서사에 나타난 이야기의 윤리」, 『현대문학이론연구』 76, 현대문학이론학회, 2019.

원영희, 「치매노인, 고달프고 애달픈 가족」,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1999.

www.kci.go.kr

채백・강승화・허윤철,「한국 텔레비전 가족 드라마를 통해 본 1990년대 이후 대인 소통과 관계의 변화」,『한국언론정보학보』103, 한국언론정보학회, 2020.

황지연,「1990년대 노희경 TV드라마의 돌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5.

「노희경 작가 : 내가 살면서 정말 궁금했던 것들에 대한 드라마」,『텐아시아』, http://10.asiae.co.kr/Articles/view.php?tsc=06.01.10&a_id=2009081208592519558, 2009.8.11., 2025.5.18. 확인.

「<티비평> SBS 창사특집극 <인생>」,『연합뉴스』, 1995.11.1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4004579?sid=103, 2025.5.18. 확인.

「<흐름> 노인문제 다룬 '실버 드라마' 본격 등장」,『연합뉴스』, 1995.11.2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4006950?sid=103, 2025.5.18. 확인.

통계청,「부모 부양 책임자」,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60&clasCd=10&idxCd=F0037, 2025.5.18. 확인.

통계청,「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추이」, 2025. https://kosis.kr/common/meta_onedepth.jsp?vwcd=MT_ZTITLE&listid=A_3, 2025.5.17. 확인.

www.kci.go.kr

Abstract

The Gendering of Elder Care in 1990s Korean Television Dramas
— Focusing on *Where Should We Go?, Life, and The Most Beautiful Goodbye*

Yun Youjeong

This study examines three Korean television dramas from the 1990s that center on issues of aging and care. The dramas include Where Should We Go?(1992) and Life(1995), two three-part special dramas written by Kim Su-hyeon and aired on SBS, and The Most Beautiful Goodbye(1996), a four-part special drama written by Noh Hee-kyung and aired on MBC. Through these works, the study explores how the vulnerability associated with old age and the burdens of caregiving are represented in Korean television during this period. Recent Korean TV dramas have begun to portray aging and death in more concrete terms, imagining alternative forms of care beyond the confines of the family. Prior to this shift, however, care was largely relegated to the background, taken for granted as a responsibility of women within the family and rarely addressed as a social issue. In the 1990s, care began to be problematized and brought to the forefront in the form of special drama series. Kim Su-hyeon's Where Should We Go? and Life scrutinize the process through which the caregiver is selected, highlighting the burdens placed on women in the family and inviting reflection on care as a broader social issue. Where Should We Go? focuses on how care labor is assigned to a daughter-in-law and explores the moment in which an untransferable relationship between caregiver and recipient is formed. Life deals with the ethical dilemmas involved in the decision to institutionalize a family member

www.kci.go.kr

requiring long-term care. Meanwhile, Noh Hee-kyung's The Most Beautiful Goodbye explores maternal love and "labor of love" through the figure of a woman who becomes both the provider and recipient of care. These television dramas portray the dependent condition of elderly care recipients in concrete ways, allowing viewers to recognize the weight borne by caregivers. However, the typical modes of representation employed in these works simultaneously produce audiovisual shock, naturalize women's care labor, and impose particular notions of vulnerability onto the subjects being represented. In order to move beyond such "fantasies" of care, we must seek an ethics of affective equality that not only attends to caregivers but also imagines the position of care recipients.

Keywords: Affective Equality, Aging, Care, Dementia Narrative, Kim Su-hyeon, *Life*, love labour, Noh Hee-kyung, *The Most Beautiful Goodbye*, Vulnerability, *Where Should We Go?*

접 수 일: 2025년 6월 30일
심사기간: 2025년 7월 21일~2025년 7월 30일
게재결정: 2025년 8월 11일

www.kci.go.kr